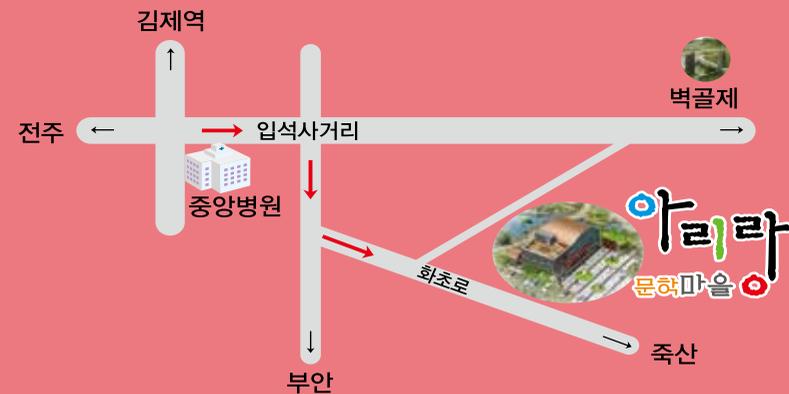


관람안내

- ** 관람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 동절기(11월~이듬해 2월)는 오전 9시~오후 5시
- ** 휴관일 : 1월 1일,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 관람료 : 무료
- ** 전시해설 : 사전 전화 예약 ☎ 063.540.2931
- ** 관람 시 유의사항
 - 전시물은 관람만 하시고 만지지 마세요.
 - 야외 반려동물 동반 시 목줄을 착용해 주세요.
 - 전시실 내에서는 휴대전화를 끄거나 진동으로 해주시고, 통화는 가급적 전시실 밖에서 하주세요.

찾아오는 길

- ** 버스 : 22번 버스(김제에서 15분 소요) ⇒ 내촌마을입구 하차
- ** 자가용 : 내비게이션 이용하실 때 “아리랑문학마을”검색 또는 주소 검색



전북 김제시 죽산면 화초로 180(홍산리 212)
Tel. 063)540-2926, 2927, 2929

시설현황



- 위치 : 김제시 죽산면 화초로 180(죽산면 홍산리 212번지 일원)
- 면적 : 29,370㎡(19동 3,067㎡)
- 사업기간 : 2008 ~ 2012(5년간)
- 주요시설 : 일제수탈관 외 18동

** 일제수탈관(1동)

- ❖ 시설 : 쌀가마니와 논을 형상화
- ❖ 내용 : 일제 식민침탈의 전 과정, 호남 김제만경평야 수탈사, 국내외 독립운동의 조명을 통해 과거·현재·미래의 항구적 독립의 의의를 다지는 전시공간

** 근대수탈기관(4동)

- ❖ 시설 : 주재소, 면사무소, 우체국, 정미소
- ❖ 내용 : 총독부 권력의 말단으로 작동했던 수탈대표기관 재현

** 소설의 발원지 김제시 내촌·외리마을(5가구 11동)

- ❖ 시설 : 소설 주요인물인 감골댁, 송수익, 지삼출, 손판석, 차득보 가옥
- ❖ 내용 : 소설 아리랑의 시작인 김제 죽산면 내촌외리마을을 각 등장인물의 가옥으로 재구성

** 이민자 가옥(2동)

- ❖ 시설 : 너와집, 갈대집
- ❖ 내용 : 일제강점기, 땅을 빼앗긴 조선의 농민들은 생존을 위해 간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이산(離散). 그 신산한 삶의 현장을 이민자 가옥을 통해 재현

** 하얼빈 역사

- ❖ 시설 : 1910년경 하얼빈역사를 60% 비율로 축소 복원
- ❖ 내용 : 안중근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식민지침탈의 부당함을 만방에 알린 의거지로 일제강점기 항쟁의 상징공간으로 조성

체험프로그램

- * **나도 독립운동가!** 역사 체험 콘텐츠 라이브스케치(하얼빈역 2층)
지금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독립운동가입니다.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를 색칠해 화면 속 역사적 현장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 일제강점기 역할체험

- 주리틀기, 곤장, 옥사체험
- 벽관, 대못상자체험 ⇒ 주재소

** 전통놀이 체험

- 투호던지기, 굴렁쇠굴리기, 윷놀이, 널뛰기, 줄다리기, 제기차기

** 전통문화 체험

- 맷돌, 절구, 지게, 물지게 맷통 체험 ⇒ 초가

** 기타 체험

- 인력거 체험, 일제강점기 의상체험

아리랑

문학마을



김제시



아리랑문학마을

아리랑문학마을은 일제강점기를 다루는 소설의 배경으로 '수탈당한 땅과 뿌리 뽑힌 민초들'이 민족의 수난과 투쟁을 대변하는 소설 아리랑의 배경을 재현한 곳이다.

'아리랑'이 노동요에 망향가, 애정가이자 만가(輓歌), 투쟁가로 민족의 노래가 되었던 것처럼 소설 속 징계맹갱(김제만경)은 강탈당하는 조선의 얼과 몸의 또다른 이름이자 끝까지 민족독립을 위해 싸워나갔던 무수한 민초들의 삶을 배태(胚胎)한 땅이다.

전남 승주군 선암사에서 출생

광주 서중학교, 서울보성고등학교를 거쳐 동국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1970년 《현대문학》 추천으로 등단한 후 왜곡된 민족사에서 개인이 처한 한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단편집 『어떤 전설』, 『20년을 비가 내리는 땅』, 『황토』, 『恨, 그 그들의 자리』, 『박토의 혼』, 중편집 『유형의 땅』, 장편소설 『大藏經』, 『불놀이』 등의 작 품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조정래 전반기 문학은 『조정래문학전집』으로 출간되었다. 조정래 대하소설 3부작인 『太白山脈』, 『아리랑』, 『한강』은 1980년대 이후 시대를 초월한 고전으로 널리 읽히고 있다.

조국은 영원히 민족의 것이지 무슨무슨 주의자들의 소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식민지 역사 속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피흘린 모든 사람들의 공은 공정하게 평가되고 공평하게 대접되어 민족통일이 성취해 낸 통일조국 앞에 겸손하게 바쳐지는 것으로 족하다. 나는 이런 결론을 앞에 두고 소설『아리랑』을 쓰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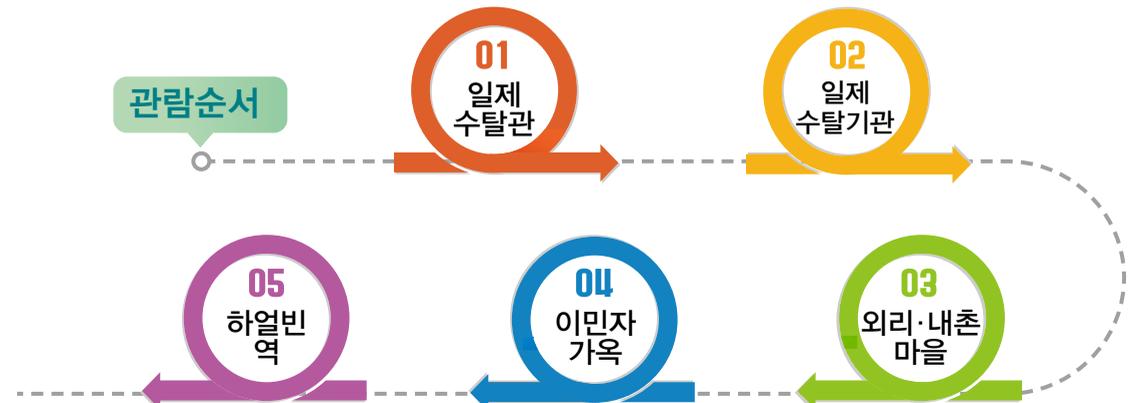
〈작가의 말〉 중에서



작가
조정래(趙廷來)



아리랑 문학마을 소개



일제수탈관

일본은 왜 수탈의 대상으로 김제를 선택했는가? 지평선을 이루는 징계맹갱 외에 밋들, 생명의 쌀이 있는 곳



일제수탈기관

일제강점기 민중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이라는 미명하에 민초들을 착취하고 탄압하던 주재소, 면사무소 등 근대 기관



내촌·외리마을

소설 아리랑의 발원지,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 들의 수탈과 고난의 삶을 소설 속 주인공의 생활터전을 통하여 느껴보는 공간



이민자가옥

일제강점기 조국에서 살지 못해 만주등지로 이주한 이민자 생활을 현실감있게 당시 모습 으로 재현



하얼빈 역사

조국의 독립을 위한 끝없는 항쟁, 1909년 10월 26일 9시경 하얼빈 역에서 이토히로부미를 저격 사살

